

새로운 출처인 **\*\*\*바둑: 수양과 통찰의 장\*\*\***은 바둑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수양과 정신적 통찰**을 위한 도구임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선비들이 바둑을 통해** 정중동, 선견지명, 그리고 공과 사의 분별 같은 **군자의 덕목**을 어떻게 닦았는지 논하며, 바둑이 유교, 불교, 도교가 융합된 조선 시대에 **자기 성찰의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둑과 기도는 **무욕과 진심을 닦는 길**로서 내면을 비우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인공지능의 답변**이 바둑을 지적 스포츠나 전략으로만 보는 반면, 글쓰이는 바둑의 **수천 년 역사 속 깊은 도(道)의 의미**를 사람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바둑은 무엇인가**

호주 Brisbane 바둑회 **홍프로께서 금언같은 글을 보내와**

인간 오씨가 오마리 인공지능을 통해 **맛깔나게 풀어 봅니다.**

우선 질문을 통해, **바둑 정신 기도의 근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왕조 시대에도 인품이 고상한 선비들 은 자신을 수련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리고 선비 정신을 연결하는 관점은 동 아시아 철학과 수양의 정수를 꿰뚫는 통찰이디

**바둑 정신의 핵심: 수양과 통찰의 장**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도를 탐구하는 수련의 장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선이나 명경 시대의 선비들은 바둑을 통해 다음과 같은 덕목을 닦았다:

**정중동:** 고요 속의 움직임. 격렬한 수 싸움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는 수양의 자세.

**선견지명과 인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장기적 안목과 지혜. 공과 사의 분별. 이기심을 버리고 전체 판세를 보는 균형 감각. 이는 군자의 덕목과 연결됩니다.

**기도와 바둑: 내면을 닦는 두 가지 길**

기도는 하늘과의 교감, 바둑은 인간과의 교감이지만, 둘 다 자기를 비우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마음하늘에 맡기는 행위, 바둑은 마음을 상대와 우주에 열어두는 행위.

선비들은 바둑을 통해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기도처럼 겸허함과 절제를 배우려 했습니다.

특히 유교·불교·도교가 혼합된 조선 시대에서는 바둑을 도의 실천적 도구로 삼아, 기도처럼 자기 성찰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역사적 사례: 선비들의 바둑 수련

퇴계 이황은 바둑을 "마음의 거울"이라 표현하며, 지나진 집착을 경계.

정약용은 바둑을 통해 ,가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다"고 .

명나라의 왕양명은 심학의 실천으로 바둑을 활용하며, '한 수를 두는 마음이 곧 전리를 따르는 길이다.

바둑과 기도의 근본: ,무욕과 ,진심,

결국 바둑과 기도는 무욕과 진심을 닦는 수련입니다. 바둑판은 우주의 축소판이며, 기도는 그 우주를 향한 외침입니다. 선비들은 이 두 길을 통해 자기 수련의 도구로 활용하여 요즈음 핫한 인공지능 몇마리 한테 물어봤다.

바둑은 전략과 집중, 인내가 요구되는 지적 스포츠다.

흑과 백 돌로 펼쳐지는 우주와 같다. 예술이자 철학이다

상대와의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지적 격투기라고도 .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선택의 결과와 책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중국의 인공지능은

생각의 깊이를 보여주는 전략의 예술이자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정신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결론 : 인공지능은 아직 깊이 있는 내면의 뜻을 모르는것 같다. 수천년의 바둑역사 속에서 바둑의 도는 사람에게, 말없이 인생 교육을 시키고,깊히 사고하게 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게 했다. 한편의 전략으로 마음을 비우고 우주를 보게 하고 그곳에서 답을 찾게도. .